

---

# 구한말 조선에 온 칼뱅주의 구학과

: 그 역사변혁의 파괴력

---

박 정신 |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 1. 머리글

다른 역사연구에서도 그러하지만, 특히 ‘사상의 사회사’ 연구에서는 어떤 사상의 텍스트(text)와 콘텍스트(context)를 함께 이어 유달리 중요하게 다룬다. 어떤 사상의 텍스트 그 자체가 역사 변동에 이런저런 영향을 끼치고 역할을 하지만, 같은 텍스트가 지니는 의미는 콘텍스트의 다름에 따라 달리 기능하고 다른 의미를 지니기 마련이다. 그래서 같은 텍스트라도 그 텍스트가 만나는 콘텍스트와 이어서 역사의 뜻을 새겨야 한다. 이 경우에도 그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자리의 다름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같은 텍스트를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같은 콘텍스트에서 삶을 꾸리더라도 개인이나 집단이 처한 사회에서의 자리의 다름에 따라 역사 변동에 있어서 그 텍스트의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상의 사회사’에서는 텍스트와 콘텍스트, 그리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나 집단(agents 또는 carriers)을 함께 이어 텍스트를 읽고자 한다.<sup>1)</sup>

종교개혁가 칼뱅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지 500주년이 되었다 해서 신학을 포함하는 인문사회학계가 전 지구적으로 야단이다. 기독교가 세계종교인 까닭에, 그리고 칼뱅의 사상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지대한 까닭에 그럴 것이다. 특히 장로교가 주류를 이루고, 다른 교파들도 장로교 전통과 관행을 모방하는 한국 기독교 이곳저곳에서는 요란스럽게 경쟁적으로 칼뱅을 다루는 모임이 한창이다. 보기를 들면 「기독교사상」, 2009년 5월호 특집은 칼뱅 탄신 500주년을 기념하는 글들을 기획하고 실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미국을 통해 들어온 칼뱅주의, 특히 그 구학과가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떠한 사회역사적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되었는지, 교회 안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으로서 역사학에 기대어 살펴 보려고 한다. 당연히 사상의 사회사적 시각에서 말이다.<sup>2)</sup>

칼뱅주의자들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과 선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다.<sup>3)</sup>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것도 칼뱅주의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믿는다는 것은 본질상 인간의 노력인데,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보았자 구원에 이르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윗글, 중권: 제3권 제1장과 2장). 이들에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이고 전적인 선택의 문제다.<sup>4)</sup>

미국에 이식된 칼뱅주의는 이런저런 역사를 거치면서 구학과와 신학파로 나뉘어 쟁투하였다. 본래 칼뱅주의는 이른바 제네바 성시화(聖市化)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개혁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이를 과격하

1) 나는 복잡한 역사 현상에 대한 인식, 특히 사상의 사회사적 인식에 있어서 텍스트를 중히 여기되, 이를 콘텍스트와 이어서 새기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한 바 있다. Chung-shin Park(1993); 박정신(1993); Chung-shin Park(2003); 박정신(1997); 박정신(2004); 박정신(2008-); 박정신(2008-). 내가 써 발표한 위의 글들에 더하여 Wood(1979), 27~41쪽도 볼 것. 나는 이 논문을 우리말로 옮겨 소개한 적이 있다(우드, 1994: 129~141).

2) 교회 안의 사람의 눈으로 칼뱅주의가 이 땅에 소개된 경로 및 영향, 그 역사에 대해 연구한 글로는 이 오갑(2009), 22~31; 이 상규(2009), 249~280; 장동민(1998); 신종철(2003)을 볼 것. 내가 굳이 '교회 밖'을 강조하는 이유는, 소위 교회사학자들의 역사 인식, 곧 지나치게 편협하고 당파적인 역사 인식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3) 소위 칼뱅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정론'과 '섭리론'에 대해서는 칼빈, 2003: 상권과 중권 볼 것.

4) 조선에 온 선교사들의 칼뱅신학 이해를 보려면, 함일돈(Hamilton), 1937/9: 19~23; 1937/11: 21~23을 볼 것.

게 실천하는 것을 신정정치로 이해하였다(Wallace, 1990: 127). ‘미국 건국의 주인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광야로 부르심”(errand into wilderness)을 받아, 구대륙을 떠나 신대륙에 와서 “언덕 위의 (거룩한) 도시”(a City upon a hill)를 건설하여 모든 족속이 우리러보도록 해야 한다는 강한 종교적 소명 의식을 가진 것도 칼뱅적인 신앙의 발로였다(Hutchison, 1987: 1~14, 91~124; Roberts/Olson, 1990: 2). 또한 막스 베버가 정확히 관찰했듯이,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문화 속에 자리 잡은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은 칼뱅의 직업 소명론이 적극적으로 내면화된 증거다(Weber, 1958: 4장, 특히 98~128).

그러나 미국의 칼뱅주의 구학파는, 계몽사상과 역사학파의 영향을 받아 고등비평에 터한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 그러한 학풍에 어느 정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칼뱅주의 신학파의 거센 도전 앞에서 더욱더 교리와 개인구원에 몰두하고 교회 안의 문제에 몰입한 나머지, 칼뱅주의가 원래 지니고 있는 세상과의 맞섬이나 변혁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교회 안으로 돌려 개인구원을 강조하고 남부 노예제도를 옹호하면서 기존질서에 안주하는 보수적 모습을 가지게 된다. 반면 신학파는 고등비평에 기대어 성서를 해석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졌다(Smylie, 1966: 9장; 신 종철, 2003: 25~62).

19세기 초·중반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신흥도시에 대학들이 들어서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꾀한다는 명분으로 신흥부자들이 ‘부의 복음’(the Gospel of Wealth)을 좇아 이미 설립된 대학에 기부하거나 자기들의 연고지에 아예 대학을 세우게 된다. 그리하여 19세기 미국은 교육의 확장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세워진 신흥대학을 졸업한 새로운 중산층의 젊은 지식인들이 새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찾아 나섰다. 그 중에서 젊은 기독교 지식인들은 이러한 흐름을 타고 당시 열기를 더해가던 세계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신흥 중산층 자녀들의 세계선교 운동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세계선교 열기를 부추겼다(박 정신, 2004: 75~91, 특히 77~80; 류 대영, 2001: 41~47).<sup>5)</sup> 물론 이 열풍의 밑바닥에는 미국 건국의 주인공들인 청교도들의 광야에로의 부르심, 그리고 사명감, 미국 특유의 개

척정신, 이것이 산업화와 태평양 연안 국가가 된 역사와 어우러져 나온 미국 특유의 제국주의와 이어져 있음은 물론이다(박 정신, 2009: 9~36, 특히 19~25).<sup>6)</sup>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왔다. 그 기독교는 칼뱅주의, 특히 구학과의 영향아래 있던 이들이 조선에 온 선교사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기독교’가 소개되고 이식된 것이다. 19세기 후반 미국 세계선교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한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스피어(Robert E. Speer)의 말처럼 “하나의 훌륭한 영적 제국주의”(the find spiritual imperialism)가 뒤늦게 제국주의 대열에 뛰어들던 미국발 제국주의의 물결을 타고서 말이다(Hutchison, 1987: 97).

평양 장로회 신학교의 거의 모든 교수들과 최초의 근대대학인 숭실대학의 거의 모든 교수들이 바로 이들로써, 주로 프린스턴 신학교와 맥코믹 신학교 출신들이다(신 종철, 2003: 14).<sup>7)</sup> 칼뱅주의 구학과의 영향 아래 있던 이들은 조선에서 자기들이 가진 신학과 신앙적 정서를 고스란히 전수하게 된다.

그러나 칼뱅주의 구학과라는 텍스트가 구한말 조선이라는 콘텍스트와 이어지고 그 텍스트를 조선사람들이 가지게 될 때 그 역사적 역할이나 기능이 미국의 콘텍스트에서 미국사람이 가지고 있었을 때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미국에서 칼뱅주의 구학과의 역사적 기능이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나온 여러 사회문제들을 ‘보수적으로’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옛 교리에 집착하고 개인구원을 강조하였다. 반면 조선에 들어온 칼뱅주의 구학과는 구한말 조선이라는 역사적 콘텍스트에서 역사변혁의 동력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Chung-shin Park, 2003 ; 박 정신, 1996: 107~114).

---

5) 이 글은 나의 논문집(박 정신, 2008-)에도 실려 있다.

6) 이 글은 본래 2007년 한국기독교 문화연구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한 것으로 나의 논문집(박 정신, 2008-)에도 실려 있다.

7) 1893년에서 1901년 사이에 조선에 온 선교사 40명의 신학교육배경은 다음과 같다. 프린스턴 16명, 맥코믹 11명, 산 안셀모 4명, 유니온 3명, 기타 6명(무디 성경학교, 뉴욕 성서신학교).

## 2. 칼뱅주의 구학과, 조선을 만나다

미국 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였던 브라운(Arthur J. Brown)은 1919년 초기 선교사들이 가졌던 신학과 신앙의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추리고 있다.

(조선) 선교활동 개시 이후 첫 4반세기 동안 조선에 온 전형적인 선교사는 청교도적 사람이었다. 한 세기 전 우리(미국) 뉴잉글랜드 선조들이 한 것과 같이 안식일을 엄격히 지켰다. 춤추고 담배 피며 카드 놀음하는 것에 예수 따르는 이들이라면 빠지지 말아야 하는 죄라고 생각하였다. 신학과 성서 비판에 있어 아주 보수적이었고, 예수 재림에 대해서는 전 천년왕국설을 매우 중요한 진리로 믿고 있었다. 고등비판이나 자유주의 신학은 위협스런 이단으로 취급하였다. ... 교회는 정결한 생활을 하는 남자와 여자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사회를 정화하여 더 나은 사회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은 다른 데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시간과 힘의 낭비라고 간주하였다(Brown, 1919: 40).

이처럼 선교사들은 당시 그들의 나라 미국에서 ‘사회 복음’ (the Social Gospel)에 대항하고 있던 청교도적 경건주의와 칼뱅주의 구학과 신학을 19세기말 조선에 이식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성서를 인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간의 신앙과 삶을 지배하는 불변의 법칙으로 보았다. 믿음은 전적으로 개인적 경험이며,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영적 교섭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들은 전형적인 미국 칼뱅주의 구학파의 사람들로서, 개인구원을 강조하고, 세상을 바꾸려 하거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는 것을 ‘시간과 힘의 낭비’라고 믿는 이들이었다. 그러한 믿음의 자명한 결과로, 이들은 신학을 자유주의화하거나 복음의 사회적 면을 강조하며 산업화와 도시화가 몰고 온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미국 칼뱅주의 신학파의 사람들을 비판하였다.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자 사이에 파고든 이론과 성서고등비평 따위는 신앙 그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복음’ 적 관심과 행동을 이단시하였다

(Brown, 1919: 여러 곳 볼 것).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친 선교사, 프린스턴 구학과에 속한 레이놀드(W. D. Reynolds)의 고백에서 우리는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에 영향 받은 초기 조선 기독교인들의 칼뱅주의 구학과의 신앙구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나는 宗教와 經典과의 關係는 絶對的이라고 본다. 如斯한 見解는 심히 保守的인 것으로 非難될런지 모르나, 그러나 나의 信念을 버릴 수 없다. … 基督教가 聖經을 버리거나 聖經을 믿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基督教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聖經이 변하는 때에는 宗教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聖經의 文字나 絶句를 고친다든지 그 精神을 덮어놓는다든지 그 의미를 굽힌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 그 原理를 그대로 保存하고 그 精神을 그대로 發揮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 우리는 眞理와 定說 이외에는 쓸데없는 公論, 歪曲된 神學說은 그것을 論議할 필요조차도 없다(김 양선, 1956: 173~174).

레이놀드와 같은 초기 선교사들은, 칼뱅주의 구학과의 산실인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와 맥코믹 신학교에서 교육받은 이들이었다. 이들에게 훈련받고 지도받은 초기 조선 기독교인들은 칼뱅주의 구학과의 신학과 신앙을 전수받은 이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적인 칼뱅주의 구학과의 신학은 당시 조선의 특수한 역사적 콘텍스트에서는 미국에서와는 아주 다른 역사적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었다. 구한말에 기독교로 개종한 조선 사람들은 유교와 다른 새로운 종교로 들어선다는 결단과 함께 앞선 서양 문명을 접하고 배우자는 뜻이 강했다. 이전에 있었던 천주교의 중국 전래나 조선 전래 때의 타협의 역사와는 달리, 구한말 개신교 선교사들은 유교적 조선의 온전한 ‘기독교화’를 도모하였다. 그것은 ‘광야에로의 부르심’의 사명감에 터한 조선이라는 이방세계로의 ‘부르심’, 바로 그것이었다. 그래서 유교사회와 맞닥뜨리는 태도와 생각이 전투적이었다. 삼종지도(三從之道)에 터한 남녀차별, 사농공상(士農工商)에 따른 불평등구조, 제사와 같은 유교적 조상숭배를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단정하고 정죄하였다. 당시 기독교화라는 뜻은 기독교라

는 새 종교 공동체에서는 유교적 가르침과 관행을 전투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한다는 의미였다. 그 보기로 구한말에 쓰인 입교문답을 보자(Robert E. Speer의 글을 따와 옮긴 박 용규, 1993: 123에 의지함).

문 : 당신은 주일을 성수합니까?

답 : 나는 학습문답교인이 된 이후 그렇게 행해왔습니다.

문 : 왜 그렇게 하셨지요?

답 : 왜냐하면 주일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문 : 당신은 음주를 합니까?

답 : 나는 한때 술고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내 몸을 잘못 사용한다면 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

문 : 이것들이 당신을 유혹하지 않던가요?

답 : 웬걸요. 물론 유혹하지요. 만일 내가 계속하여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나는 끊임없는 노름, 간음죄 등에 유혹을 받았을 겁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보급된 전도책자 <구세론>에서도 유사한 보기가 있어, 하나 따와 본다(<구세론>, 15~17에 실린 이 글 따옴은 이 만열, 1991: 223에서 그대로 빌려옴).

문 : 제사드리는 것이 마땅하뇨, 아니 마땅하뇨.

답 : 마땅치 아니하다.

문 : 예수교하는 사람이 조상에 제사하는 것이 옳으뇨, 옳지 아니하뇨

답 : 옳지 아니하니, 일체 못하느니라.

문 : 어찌하여 옳지 아니하뇨.

답 : 조상이 이미 세상을 버리고 갔으니 음식을 능히 먹지 못할 것이매 제사는 헛된 일이 되고 또 정령히 여호와 계명을 범하는 것이니 외양으로 지내는 체도 못하느니라.

문 : 내가 제사를 아니하면 어찌 조상 공경하는 마음을 표하리요.

답 : 조상을 사모하며 그 교훈을 생각하며 그 분부한 것을 좃아 행하며 평생

에 맞지 아니하는 것이 조상 공경하는 마음을 표하느니라.

이처럼 비타협적 칼뱅주의 구학과와 신학을 가진 선교사들은 조선 기독교인들에게 ‘넓은 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의 윤리적 삶을 선택하도록 요구하였다.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이들이 따르는 가치와 삶의 방식에 등을 돌리고, 아직 얼마 되지 않은 무리의 새 종교 공동체가 요구하는 윤리적 가르침과 삶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였다. 제사와 같은, 당시 모두가 따르던 유교적 관행을 저버리는 것은 유교 사회의 밑뿌리를 뽑아내는 행위였고, 조상과 부모에 대한 도리를 외면하는 것은 불효·불충의 행동이었다(*The Korea Repository*, 1895: 198). 말하자면 이는 당시 조선 사회를 가장 깊은 수준에서 바꾸어 보자는 소리 없는 혁명이었다. 선교사들과 구한말 조선 기독교인들이 가진 칼뱅주의 구학과 신학의 비타협적인 특성이 오히려 유교적 조선 사회를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기독교인들을 유교적 질서와 맞서고 초월하려 했던, 그래서 더욱 더 유교적 가치와 맞선 비타협적 개혁꾼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박정신, 1996).

### 3. 소리 없는 혁명이 일어나다

그래서 이들의 종교 공동체에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변화란 옛 것과 새 것, 유교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이를테면, “조선의 (유교적) 스승들은 여자는 남자보다 못하다고 가르쳤다. 기독교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함으로써 충돌이 있게 된다. 이들은 어떤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역시 이에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초기 선교사들의 가르침이 그 좋은 보기이다(Jones, 1898: 392). 이 밖에도 이 글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고, 개인의 능력보다 조상 덕에 양반이 되어 위세부리는 유교적 조선의 가치와 제도를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윌콕, 394).

유교적 조선에서 위세를 부려왔던 어떤 양반이 새로이 잉태된 이 종교



공동체에 들어온 후의 고백을 들어 보자.

너 달 전 나는 이 사랑방(예배처소-글쓴이 달음)에 있는 것이 부끄러웠다. 교인들이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는 기분이 매우 언짢아 똑바로 편히 앉았었지만, 얼마 후 나도 무릎을 꿇기 시작했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내 친구들은 내가 미쳐버렸다고 말하면서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미쳐 버린 징조가 아니다. 사실 나는 양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는 양반으로, 또한 어떤 이는 상놈으로 만드시지 않았다. 인간들이 그러한 구분을 지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만드시었다(*The Church at Home and Abroad*, 1894: 120).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이 새로운 종교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던 소리 없는 혁명적 변화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예수를 믿은 뒤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양반의 말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도 유교적 조선에서 크게 위세를 부리던 양반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평민과 부녀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 함께 무릎 꿇고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 ‘행위’ 자체가 개종한 양반의 신분 타파 운동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유교적 가치와 관행을 비롯한 조선의 관습들을 ‘이방적인 것’,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바꾸려 했던, 칼뱅주의 구학과에 영향 받은 미국 선교사들이 가르친 이들 조선 기독교인들의 행위는 사회 개혁과 도덕적 갱생을 도모하는 미국의 칼뱅주의 신학과에 속한 이들을 비롯한 진보적 신학의 사회복음주의자들의 활동을 연상케 한다.

새로이 옴터 자그마하지만, 그러나 응집력이 대단했던 이 새 종교 공동체에서 선교사들과 조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양반과 상놈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평등하게 창조하였다느니, 담배 피고 술 마시며 놀음과 축첩을 하는 행위는 죄라고 말하며, 또 그러한 죄로부터의 회개와 단절을 실천하였다. 아울러 이에 머물지 않고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 새 윤리를 가르치고 새 삶을 보여주었다. 칼뱅주의 구학과에 터한 기독교인들의 이러

한 ‘사회복음’은 방방곡곡에 세워지고 있던 교회와 또 교회가 세운 학교 및 병원, 그리고 교회가 내는 신문과 잡지, 그밖에 여러 가지 사회사업기관을 통하여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새로운 사회윤리를 가르치고 변화되어 완전히 다른 삶을 보이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교적 조선을 개혁하려는 사회·정치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것이다(Park, 2003: 4장).<sup>8)</sup>

상황이 이러한데도, 초기 선교사들과 조선의 개종자들이 가진 경건적 복음주의와 칼뱅주의 구학과의 영향아래 있던 이들이 사회개혁에 무관심하였다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 브라운과 같은 당시 선교 본부 사람들이나 소위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 속한 학자들은 어떤 생각에서 초기 선교사들과 조선의 개종자들이 당시 유교적 조선에서 보인 사회개혁적 성격과 기능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 조선에 개신교를 전해 준 19세기 미국 기독교계에서 칼뱅주의 구학과의 신학을 추종하고 또 그에 영향 받은 이들이 ‘사회복음’ 운동에 맞서 개인구원을 강조하며 교회를 사회와 분리,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했던 사실만 보고 조선의 칼뱅주의 구학파에 영향 받은 이들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지레 짐작한 때문인가? 아니면 조선의 칼뱅주의 구학파에 영향 받은 이들이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 분명히 보여준 엄청난 변화들을 보기보다 몇몇 선교사들이 맡은 교회들의 사회참여 반대 태도만을 보려고 억지로 짐작한 때문인가?

그렇기에 나는 텍스트만 읽고 이른바 ‘실증주의 사학’에 천착하는 한국 역사학계에 탄축을 거는 것이다. 되풀이 강조하건대, 조선에 들어온 것이 미국에서 비정치적·반사회복음적 칼뱅주의 구학과의 신학이었지만, 이것이 들어와 가능한 콘텍스트가 구한말 조선이었고, 또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시 조선의 역사 구조적 상황은 유교적 가치와 제도가 힘을 잃어가고, 변화와 개혁이 무르익어가고 있던 때이다. 바로 그 때 서양에서 들어온 새 종교를 받아들인 조선 사람들이란 유교적 조선 사회에서 천대받던 하층민이 대다수였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적은 수의 양반들이 그 틈에 끼어 있었다

---

8) 선교 과정에서 으레 나오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와 문명화(Civilization)의 관계에 대해서는 Hutchison(1987) 볼 것.

(Park, 1975: 70~93). 자연히 이들은 유교 체제와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하게 이어져 있지 못한 조선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다른 이들보다 더욱 개혁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다(Park, 2003: 1장, 4장). 이 당시 변화나 개혁이란 유교적 옛 가치와 관행을 부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유교적 신념 체계와 풍습을 ‘이방적인 것’, ‘악한 것’으로 비록 단순하게 취급하였지만,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개혁의지를 더욱 전투적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는 개혁운동을 더욱 촉진시키고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사실 초기 조선 기독교인들은 선교활동과 사회개혁운동을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주장들은 당시 이 종교 공동체가 발간한 <조선 크리스도인 회보>나 <그리스도 신문>, 그리고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개화 운동에 앞장섰던 윤치호도 기독교 선교활동과 사회정치개혁운동을 따로 떼어 보지 않았다.<sup>9)</sup> 초기 조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단순히 하나의 종교로만 수용하지 않았고, 19세기 말 서양 기독교 국가들이 보여준 ‘힘과 부의 근원’으로 보고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초기 선교사들과 조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선교를 위하여, 또한 유교적 조선을 개혁하기 위하여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열었으며, 그밖에 여러 사회 문화사업을 펼쳤다. 칼뱅주의 구학파의 추종자로서 선교사들이 채택한 선교 방법과 전략 또한 유교적 조선의 밑바탕을 뒤흔드는 것이었고, 그 결과 역시 혁명적 변화를 몰고 왔다. 이를테면 <네비우스 방법>은 상민, 부녀자, 젊은이들과 같은 유교적 조선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되어 온 계층을 주 선교대상으로 삼았는데(Clark, 1928),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신분구별과 차별이 만연하던 조선 사회에서 아무리 효과적 선교를 위한 잔피라 하더라도, 하층 민을 주대상으로 삼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혁명적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이들과 손쉽게 교섭하기 위해 지배계층의 글인 어려운 한문을 되도록 피하고 민중의 글, 한글을 사용했다는 것도 눈 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하여튼 바로 이러한 선교 전략과 방법으로 신분적 조선 사회에서 하층

---

9) 「尹致昊日記」, 1889년 3월 30일(한글), 1893년 4월 18일(영문), 1890년 5월 18일(영문) 외에도 그의 일기 여러 곳을 볼 것.

신분이 새 종교 공동체에 먼저 들어와 새 교육을 비롯한 새 의료, 사회봉사를 더 먼저 받게 되었다. 칼뱅주의 구학과에 영향 받은 초기 선교사들이 비록 선교의 효과만을 노린 전략이었다 하더라도 하층민을 선교의 주대상으로 삼아 새 교육을 먼저 받게 하고 교회를 이끌도록 훈련시켜, 하층민들이 이 새 공동체를 통하여 당시 일어나고 있던 여러 사회 정치 운동의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른바 신분차별적 조선 사회에서 신분 타파는 물론 하층 신분의 사회적 상승 이동이 이 종교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Park, 2003: 3장).

#### 4. 꼬리글

구한말, 교회 공동체와 개혁운동은 깊이 맞물려 있었다. 신분적 조선 사회에서 짓눌려 살아온 하층민과, 양반이었으나 소외되어온 적은 수의 지식계층, 다시 말해서 반유교적인 조선 사람들이 이 새 종교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개혁지향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더욱이 전투적 칼뱅주의 구학과의 신학을 가진 당시 교회는 조선 사회와 맞닥뜨리지 않고, 그 사회의 이념적 바탕인 유교적 가치와 관행들, 이를테면, 제사, 축첩행위, 남녀차별, 반상(班常)차별 따위와 당시 조선사회에 만연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며 놀음하는’ 풍조들을 ‘이방적인 것’, ‘악한 것’, ‘비기독교적인 것’이라 하여 타파하려는 조선의 개혁세력과 기독교인들의 개혁의지를 종교적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칼뱅주의 구학과와 신학에서 영향 받은 선교사들은 완전한 ‘기독교화’를 위해 이 종교 공동체로 들어오는 조선 사람들에게 옛 가치, 옛 삶, 옛 습관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새 (기독교) 윤리로 무장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훈련시켰다. 이러한 조선 기독교인들은 조선 사회의 기독교화라는 사명의식을 갖게 되어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 여러 사회정치운동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선교활동은 개혁운동과 별개의 것이 아닌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 교회는 서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는데, 이 중

교 공동체의 성장이란 칼뱅주의 구학파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의 성장이고, 또한 전투적으로 유교적 조선을 개혁하려는 진보적 개혁세력의 확대를 뜻한다 할 것이다. 19세기 미국에서는, 그리고 1970년대와 80년대 우리 사회에서 칼뱅주의 구학파의 신학에 터한 교회들이 사회 구조악을 뿌리 뽑고 사회정의를 이루는 일에 기독교인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복음’을 이단시한 것과는 달리, 구한말의 칼뱅주의 구학파에 영향 받은 교회는 진보적 사회정치 개혁운동을 적극 펼치고 나왔던 것이다. 그렇기에 구한말의 여러 진보적 개혁운동이 이 종교 공동체에 조직적으로, 이념적으로 기대어 펼쳐졌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한말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전해준 신학이란 칼뱅주의 구학파와 청교도적 경건주의였다. 이러한 신학을 신봉한 초기 선교사들과 조선 기독교인들은 유교적 사회를 뿌리째 흔들어 하늘나라와 같은 새 사회,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자 하였다. 새 신자를 얻을 때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유교적 가치와 관행을 포기하고 기독교적 신념 체계와 윤리대로 살 것을 초기 선교사들은 요구하였다. 기독교 율타리 안에서, 특히 당시 미국에서 사회 정치 현실에 무관심하고 개인구원만을 가르친 칼뱅주의 구학파의 신학은 구한말 조선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콘텍스트에서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칼뱅주의 구학파처럼 현실문제에 등을 돌리게 하는 신학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진보적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 사회 개혁운동의 이념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정치신학’으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바로 그때가 유교적 조선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였고, 유교적 사회에서 천대 받던 조선 사람들과 유교적 조선을 개혁하려는 이들이 이 종교로 들어와 이 신학과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다. 그리고 역사를 읽는 재미가 여기에 있다. 요컨대, 역사는 텍스트와 콘텍스트, 그리고 그 텍스트를 접한 이들이나 집단이 함께 빚어 만들어내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단선적인, 혹은 단정적인 역사 읽기는 역사를 오독하고 ‘사상의 사회사’를 왜곡할 수 있다. 복잡다단한 역사의 결과 무늬를 잘 살피고 헤아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역사학자의 업무이기에, 실증사학을 넘어 해석사학으로 그리고 설명의 사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 ■ 도움 받은 글

---

- 김 양선, 『韓國基督教 解放 十年史』(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교육부, 1956).
- 류 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 박 용규, 『韓國長老教 思想史』(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93).
- 박 정신, “구한말, 일제초기 기독교 신학과 정치,” 『현상과인식』, 57권 (1996년 봄).
- \_\_\_\_\_, 『기독교와 근대한국』(서울: 민영사, 1997).
- \_\_\_\_\_, 『한국기독교사 인식』(서울: 해안, 2004).
- \_\_\_\_\_,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대학교육,” 『아세아문화』, 20호 (2004 4월).
- \_\_\_\_\_, 『한국기독교사의 새로운 이해』(서울: 새길, 2008 7).
- \_\_\_\_\_, 『역사학에 기댄 우리 지성사회 인식』(서울: 북코리아, 2008 1).
- \_\_\_\_\_, “역사의 베어드, 베어드의 역사,” 『베어드와 한국 선교』(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09).
- 신 종철, 『한국장로교회와 근본주의』(서울: 그리스심, 2003).
- 우드, G., “지성사 연구와 사회과학”(박정신 옮김), 『현상과인식』, 64권 3호(1994년 가을).
- 이 만열, “한말 基督教 思潮의 兩面性 試考 - 한국기독교의 진보·보수의 역사성 탐구와 관련하여,” 『韓國基督教과 民族意識』(서울: 지식산업사, 1991).
- 이 상규, “한국에서의 칼빈 연구,” 『칼빈과 한국교회』(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 이 오갑, “갈뱅의 성격과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605호 (2009년 5월).
- 장 동민, 『박형룡의 신학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8).
- 칼빈, 존, 『기독교강요』(상, 중)(원 광역 옮김)(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함일돈(Hamilton), “칼빈주의,” 『神學指南』, 95권 (1937년 9월, 11월호).
- 『尹致昊日記』
- Brown, Arthur J., *the Mystery of the Far Eas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19).
- Clark, Charles Allen, *Korean Church and the Navius Method* (New York: Fleming H. Revell, 1928).
- Hutchison, William R., *Errand to the World: American Protestant Thought and Foreign Mi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Jones, George H., “Open Korea and Its Methodist Mission,” *The Gospel in All Lands* (1898년 9월).
- Park, Chung-shin, “Protestantism in Late Confucian Korea—Its Growth and Historical Meaning,” *Journal of Korean Studies*, 8권(1993년).
- \_\_\_\_\_,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Seattle/London: University of Washing Press, 2003).
- Park, Yong-shin, “Protestant Christianity and Social Change in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1975).
- Roberts, Randy/James S. Olson(역음), *American Experiences*, 전 2권(Glenview, Illinois: Scott, Foresman/Little, Brown Higher Education, 1990).
- Smyleie, James H., *A Brief History of the Presbyterian* (Louisville, Ky.: Geneva Press, 1966).
- Wallace, Ronald S., *Calvin: Geneva and Reformat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0).

Weber, Max,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 by Talcott Parson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58).

Wood. Gordon S, "Intellectual History and Social Science." John Higham and Paul K. ConKin (역음), *New Direction in American Intellectual History*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The Korean Repository*, 제2권 4호 (1895년 4월).

*The Church at Home and Abroad*, 제16권 (1894년 8월).

검색어          칼뱅주의 구학파, 구한말, 사회복음, 사상의 사회사, 설명의 역사학

투고일/심사일/게재확정일    2009.08.30 / 2009.08.31 / 2009.09.14

---

# The Old-Calvinist Missionaries Coming to the Late Confucian Korea

: Its Tremendous Effects on Historical Transformation

---

Chung-shin Park

Professor, Dept. of Christian Studies, Soongsil University

This essay aims to explore how the old-Calvinism in America had effected on and had been effected by the late Confucian Korea from the social historical view of thoughts.

The old-Calvinism in America had lost its original spirit of social transformation in Geneva, because it gave a challenge to the new-Calvinism that focused on the liberal theological trend based on higher criticism and social gospel movement. However, as the American missionaries who had been influenced by the old-Calvinism and the Puritanism came to the late Confucian Korea, the old-Calvinism came to function as the motive power or the driving force to transform the given social structure and the old morality stemmed from Confucianism. In sum, the old-Calvinism met with the late Confucian Korea went totally different way from the one in America.



It shows that to read the historical phenomenon in the appropriate way, we, I agree, need to consider the triple relationship whose components are text, context, and agents or carriers. It is the very reason why we should scrutinize the historical studies of explanation or interpretation instead of reading history based only on texts.

**Key Words** old-Calvinism, the late Confucian Korea, social gospel, social history of thoughts, historical studies of explanation